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아동가족학석사 학위논문

비혼 동거자의 특성 및  
혼인신고 의향 관련 요인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김 유 진

# 비혼 동거자의 특성 및 혼인신고 의향 관련 요인

지도교수 진 미 정

이 논문을 아동가족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김 유 진

김유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Grace H. Chung (인)

부위원장 김 경 민 (인)

위 원 진 미 정 (인)

## 국문초록

비혼 동거는 개인화되고 있는 한국 가족과 결혼제도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가족생활을 예측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혼 동거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첫째, 집합적 수준의 분석을 통해, 국내 동거 인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재 동거 모집단의 표본들이 없으므로, 통계청 승인 표본조사인 「사회조사」, 「가족실태조사」,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동거 인구의 규모 및 시대적 추이와 전반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개인적 수준의 분석을 통해, 동거의 유형을 구분하고 관련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동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혼인신고 의향을 기준으로 결혼의 과정으로서의 동거와 대안으로서의 동거로 구분하고, 연령대별로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생애발달 요인(연령, 자녀계획 유무, 동거지속 기간), 사회경제적지위 요인(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근로여부), 가치관 요인(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전통적 성역할태도, 긍정적 자녀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혼 동거자는 배우자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전국 단위의 표본조사를 비교·분석하여 동거자의 규모 및 추이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비혼 동거 가구의 비율은 3% 이내였다. OECD 평균 동거율에 비해 현저히 작은

수치이며, 비혼 동거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와는 달리 실제로 동거하는 사람의 비율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후 인구주택총조사에 동거 여부를 함께 조사하여, 동거에 대한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보다 과정으로서의 동거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유럽과 달리,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결혼의 과정으로서의 동거가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의 동거는 전통적 결혼제도 진입의 한 경로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거를 선택하는 이들이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한 비계를 마련할 정책적·제도적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중년층과 장·노년층의 동거 양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청·중년층은 결혼의 과정으로서의 동거, 장·노년층은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하여, 청·중년층은 동거 관계에서 결혼제도로 진입할 때 사회경제적지위 요인과 출산 의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장·노년층은 연령, 동거지속기간, 근로여부,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과 긍정적 자녀인식이 혼인신고 의향의 유의한 설명요인이었다. 추후 정책적 논의에서 연령을 구분하여 비혼 동거에 대해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내 비혼 동거자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동거자의 비율과 특성을 대략적으로 규명하였다. 주로 질적 연구 및 문헌고찰 연구로 이루어졌던 국내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한 의의가 있다. 비혼 동거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사회 및 정책적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비혼 동거, 동거자, 혼인신고 의향, 결혼의 과정으로서의 동거,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 로지스틱 회귀분석

학 번 : 2021-27139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문제 .....	7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	8
제 1 절 비혼 동거의 개념과 배경 .....	8
1. 비혼 동거의 개념적 정의 .....	8
2. 이론적 배경 .....	9
제 2 절 비혼 동거의 구분 .....	10
1. 혼인신고 의향에 따른 구분 .....	10
2. 연령대별 혼인신고 의향의 차이 .....	13
제 3 절 혼인신고 의향 관련 요인 .....	14
1. 생애발달 요인 .....	15
2.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	16
3. 가치관 요인 .....	18
4. 인구학적 요인 .....	20
제 3 장 연구방법 .....	21
제 1 절 분석자료 .....	21
제 2 절 측정도구 .....	23
1. 혼인신고 의향 .....	23
2. 생애발달 요인 .....	24
3.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	24
4. 가치관 요인 .....	25
5. 인구학적 요인 .....	26

제 3 절 분석방법 .....	28
<b>제 4 장 연구결과 .....</b>	<b>30</b>
제 1 절 비혼 동거자의 비율과 특성 .....	30
1. 비혼 동거 가구의 비율과 추이 .....	30
2. 비혼 동거자의 일반적 특성 .....	33
제 2 절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 .....	37
1. 혼인신고 의향에 따른 차이 .....	37
2. 연령에 따른 차이와 혼인신고 의향 간 관계 .....	38
3. 혼인신고 의향 관련 요인 .....	40
<b>제 5 장 결론 및 제언 .....</b>	<b>46</b>
제 1 절 결론 및 논의 .....	46
제 2 절 의의 및 제언 .....	52
<b>참고문헌 .....</b>	<b>54</b>
<b>Abstract .....</b>	<b>64</b>



## 표 목 차

<표 3-1> 분석자료 비교 .....	23
<표 3-2> 변수에 대한 요약 .....	27
<표 4-1> 비혼 동거 가구의 비율 .....	31
<표 4-2> 연령대별 동거자 비율 추이 .....	32
<표 4-3> 자료별 비혼 동거자의 일반적 특성 .....	36
<표 4-4>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에 따른 차이 .....	38
<표 4-5> 비혼 동거자의 연령층에 따른 차이 .....	39
<표 4-6> 연령대별 혼인신고 의향 차이 .....	40
<표 4-7> 혼인신고 의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가족실태조사」 .....	42
<표 4-8> 비혼 동거자의 로짓 한계효과: 「가족실태조사」 .....	43
<표 4-9> 혼인신고 의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가족과 출산 조사」 .....	44
<표 4-10> 비혼 동거자의 로짓 한계효과: 「가족과 출산 조사」 .....	45

## 그 림 목 차

<그림 4-1> 연령대별 동거자 비율 추이 .....	32
-------------------------------	----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이 선택으로 여겨지고 가족의 구성과 생애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비혼 동거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 없이 동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약 70%가 되었고, 국민 64.6%가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것에 찬성하였다(여성가족부, 2021a). 비혼 동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증가에 이어, 2023년 최근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사회 구성의 법적 단위로 인정하자는 법안인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비혼 동거는 가족정책과 가족학 연구에서 중요하면서도 시의성 있는 주제이다. 동거와 같은 친밀한 파트너십은 개인적 선택의 결과를 넘어 사회구조적 환경 및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중에서도 동거는 결혼의 탈제도화 맥락에서 개인화되고 있는 한국의 가족과 결혼제도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가족생활을 예측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동거가 점차 가족 형성 과정의 첫 단계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Hellstrand et al., 2022)에서도 가족인구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새로운 가족 형성 경로를 반영하는 비혼 동거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혼 동거에 관한 선행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첫 번째는 집합적 수준의 분석을 통해, 동거 인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인적 수준의 분석을 통해, 동거의 유형을 구분하고 관련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비혼 동거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동거 연구에서 한 가지 문제는 국내 비혼 동거자의 규모에 대해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럽, 미국과 같은 국가는 동거 관련 조사와 통계가 존재하고, 1990년대 이후로 동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비혼 동거가 보편화됨에 따라, 미국은 「U.S. Census Bureau」에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European Union 2011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에서 동거를 하는 사람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OECD, 2016). 그러나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혼인 건수나 혼인율에서 혼인신고 결과만을 집계하기 때문에, 비혼 동거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동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동거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 동거 인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동거 가족 현황 파악을 위한 행정 통계 및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변수정, 2021a). 가족 전반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 OECD Family Database의 ‘동거율과 기타 파트너십 비율’ 지표에서도 한국의 동거 현황은 찾아볼 수 없다(OECD, 2016). 현재 국내에서 동거 모집단의 표본들이 없고,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혼인상태를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으로만 나누어서 측정하고 있어 전수조사에서는 비혼 동거자의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다.

전수조사를 대신하여 현재 비혼 동거 인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통계청 승인 표본조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혼 동거자를 측정한 표본조사인 「사회조사」, 「가족실태조사」,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은 2006년부터 가족, 복지, 교육과 훈련 등 사회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조사인 「사회조사」에서 혼인상태 문항에 ‘혼인신고 여부’를 함께 조사해왔다(통계청, 2020). 또한, 여성가족부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부터 비혼 동거 가족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원의 혼인상태 문항에 ‘혼인신고 여부’와 ‘혼인신고 계획’을 추가하였다(김영란 외, 2021a).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결혼과 출산이 보편적 생애사건이 아님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동거 관계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박종서 외, 2021). 세 가지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내 비

혼 동거 가구의 규모를 추정하고 동거자 비율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집합적 수준에서 동거자의 비율과 추이를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개인적 수준에서 비혼 동거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과거에는 주로 어쩔 수 없이 동거를 선택하였으나, 현재는 가족의 형태와 인식이 변화된 만큼 동거의 이유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후기산업사회 전까지 한국에서 동거는 결혼 이전의 일시적 경험 혹은 결혼 규범에서의 이탈로 여겨져 왔다(이호재, 1991). 동거의 이유가 다양화되고 단순히 결혼 전 단계로만의 동거가 아닌 결혼의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오정아, 변수정, 2019)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비혼 동거자들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혼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상을 통해 가족의 의미 변화를 진단하고, 그들의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동거 관련 정책적 논의에서 국외 연구들을 근거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별로 문화적 배경과 환경이 달라 한국 동거자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는 각각 시민연대계약(PACS), 등록동반자제도, 법정동거를 통해 동성과 이성 결합을 보호하는 등록동반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김상용, 안문희, 2022).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는 동거를 이성 간 연인들이 결혼으로 가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았지만, 이후에는 동거를 공식적인 연합의 출발점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다(Manning, 2001; Smock, 2000). 한국은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았고, 전통적인 혼인에 대해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녀왔으므로 문화적인 맥락이 다르다는 점에서 국외 연구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양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비혼 동거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동거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질적 연구(김희연, 2022; 이희운, 박정윤, 2017; 조성봉, 2017; 조추용, 2012)와 문헌 고찰 연구(권미경, 지영숙, 2005; 송인하, 임춘희, 2014)이다. 예외적으로, 이연주(2008)와 김원정과 김순남(2018)은 양적 자

료인 혼인신고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혼인신고 자료는 이미 혼인을 한 사람 중에서 결혼 전에 동거한 사람들의 특성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결혼으로 이행되지 않은 동거자들의 특성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결혼과 상관없이 현재 동거 중인 응답자를 모두 포함하는 양적 자료를 사용하여, 비혼 동거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비혼 동거자의 특성을 살펴볼 때, 동거자의 내부적 차이에 주목하여 집단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거의 이유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동거자가 단일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동거는 결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동거의 이유에 따라 동거는 결혼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국외 연구에서는 비혼 동거를 주로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와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로 구분해왔고(Hiekel et al., 2014; Rindfuss & VandenHeuvel, 1990), 두 유형은 질적으로 다르다. 결혼의 과정으로서 동거를 하는 사람은 결혼제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결혼의 대안으로서 동거를 하는 사람은 결혼을 거부하고 계속 동거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두 유형을 나눔으로써, 동거와 결혼제도 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결혼으로 이행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결혼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동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혼 과정으로서의 동거와 대안으로서의 동거는 혼인신고 의향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결혼제도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동거 유형의 구분이 가능하다. 결혼 계획이 있는 동거자는 결혼 계획이 없는 동거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계만족도와 안정성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Willoughby et al., 2012), 결혼 계획에 따라 동거자 간 관계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인신고 의향을 기준으로, 의향이 있으면 과정으로서의 동거, 없으면 대안으로서의 동거로 비혼 동거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현재 통계청 승인 표본조사 중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을 조사한 조사는 「가족실태조사(2020년)」와 「가족과 출산 조사(2021년)」 자료이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어떤 유형의 동거가 주류를 이루는지 살펴보고, 혼인신고를 통해 관계를 제도화하려는 사람의 특성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대안적인 형태로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비혼 동거자의 특성을 파악할 때, 연령대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혼 동거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 결과, 비혼 동거에 대한 수용성이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다소 낮았다는 점(여성가족부, 2021a)을 고려했을 때, 연령대별로 동거하는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외국 연구에서 나타나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동거 양상은 매우 다른데, 노년층 동거자들은 청년층보다 더 높은 관계의 질과 안정성을 보고한다(Brown et al., 2012). 연령이 낮은 동거자들은 그들의 관계를 결혼의 전조로 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은 동거자들은 그들의 관계를 결혼의 대안으로 볼 가능성이 높았다(King & Scott, 2005).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연령대에 따라 동거 양상이 상이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청·중년층(19-49세)과 장·노년층(50세 이상)을 나누어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할 때,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생애발달적으로 혼인신고 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연령별로 동거하는 이유가 다르고(김영란 외, 2021b), 동거 관계에서도 자녀를 출산하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출산과 결혼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연령과 출산 의향이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연령이 높아 생애발달적으로 혼인신고 의향이 없을 수 있고, 출산 의향이 있어 제도 안으로 진입하려는 의향이 높을 수 있다. 또한, 동거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혼인신고 의향도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혼인신고 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신가족경제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경

제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족 형태를 선택한다(Becker, 1991). 교육수준, 근로여부, 주관적 계층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동거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 동거를 선택하지만(Bumpass & Lu, 2000), 고학력자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동거를 선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Kalmijn, 2007)가 혼재되어 있어 한국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가치관에 따라 혼인신고 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2의 인구변천 이론에 따르면, 관념적인 측면의 변화로 인해 동거가 증가하였다고 본다(Lesthaeghe, 2010). 가치관이 더 개방적일수록 결혼의 대안적인 형태로서의 동거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더 평등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동거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larkberg et al., 1995). 이를 바탕으로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생애발달 요인, 사회경제적지위(SES) 요인, 가치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요인이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에 적합한 사회·정책적 논의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집합적 수준에서 국내 비혼 동거자의 비율, 추이, 특성을 파악하고, 개인적 수준에서 연령대를 구분하여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때 관련이 있는 요인은 생애발달 요인(연령, 자녀계획 유무, 동거지속기간), 사회경제적지위 요인(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근로여부), 가치관 요인(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전통적 성역할태도, 긍정적 자녀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 조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혼 동거자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주로 질적 연구 및 문헌고찰 연구로 이루어졌던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비혼 동거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의의가 있을 것이며, 사회·정책 및 법적 논의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전국 단위 조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한국 비혼 동거자의 전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1-1. 동거 비율 및 연령대별 분포의 시대적 추이는 어떠한가?

1-2. 비혼 동거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비혼 동거자의 생애발달 요인,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가치관 요인은 혼인신고 의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1. 청·중년층의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2-2. 장·노년층의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 제 1 절 비혼 동거의 개념과 배경

#### 1. 비혼 동거의 개념적 정의

비혼 동거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개념적 정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동거는 ‘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삶’ 또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지며 한집에서 삶’이라는 의미이다(표준국어대사전, 2023). 결혼과 동거를 나누어 살펴본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은 법적으로 정의된 법률혼으로, 동거는 성적으로 친밀한 공동 주거 관계에서 함께 사는 것으로 정의한다(Sassler & Lichter, 2020). 동거 관계는 쉽게 끝날 수 있고 육아나 결혼보다 헌신을 덜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결혼과 다른 기대를 가지며(Hellstrand et al., 2022),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법률혼 집단과 동거 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변수정, 2022). 이를 바탕으로 비혼 동거자를 배우자나 애인 및 파트너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동거와 유사한 의미로 자주 언급되는 용어는 바로 ‘사실혼’이다.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한다. 남녀가 모두 혼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혼인 형태의 개념이다. 사실혼은 동거의 더 세분화된 형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실혼을 동거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고, 크게 동거라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동거를 표현하는 방식도 연구마다 혼재되어 있다. 국내 동거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혼전 동거(양수진, 임춘희, 2012)’, ‘혼외 동거(이병

화, 2020)', '비혼 동거(변수정, 2021a)'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구마다 맥락이 조금씩 다르다. 혼전 동거는 결혼하기 이전에 하는 동거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결혼하려는 의도가 존재한다. 이병화(2020)는 혼외 동거를 사실상의 결합인 미혼 동거와 등록파트너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혼전 동거는 결혼을 하지 않고 대안으로 선택하는 동거를 포함하지 않고, 혼외 동거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 등록파트너십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표현에 한계가 있다. 비혼 동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를 의미하며, 본 연구의 정의와 일치한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비혼 동거가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는 '비혼 동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비혼'은 연구자마다 뜻하는 바가 다르지만, 결혼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용어의 비혼을 사용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결혼의 탈제도화 담론은 사회적 규범이 약해짐에 따라 결혼의 지위가 쇠퇴하였고, 결혼한 커플에게만 부여되었던 권리 중 일부를 동거 커플에게 부여하면서 동거와 결혼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본다(Cherlin, 2004). 특히, 이 관점은 서구 사회에서 개인주의와 결혼의 탈제도화가 결합하면서 동거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본다. 국외 연구들은 결혼의 탈제도화 맥락에서 동거를 언급하고 있는데, Sessler and Miller(2023)는 이를 근거로 하여 생애과정에서 동거의 의미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혼제도로 진입하려는 동거자와 동거 상태로 계속 남아 있으려는 동거자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결혼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의 탈제도화 담론의 맥락에서 비혼 동거자들의 혼인신고 의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가족경제 이론은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는 것을 시장의 교환 논

리에 따라 해석하는 이론이다(Becker, 1991). 이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혼이나 대안적 가족 형태를 선택한다고 본다. 특히, 자녀 양육을 포함한 생산과 소비 활동을 촉진하고, 공동 재산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위해 결혼을 선택한다고 본다. 이를 고려할 때, 자녀출산에 관련된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동거자의 결혼제도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녀출산 계획, 경제적인 요인과 혼인신고 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의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은 최근 수십 년간의 가족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개인주의와 자율성 강조와 같은 관념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 결혼과 출산의 단절, 고령화, 동거의 증가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본다(Lesthaeghe, 2010). 즉, 동거를 선택하는 것은 가치관과 같은 태도 및 규범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Surkyn & Lesthaeghe, 2004). 한국의 경우, 비혼 동거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고 가치관도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a). 이를 고려할 때, 실제로 가치관이 결혼 및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치관을 구분하여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 2 절 비혼 동거의 구분

### 1. 혼인신고 의향에 따른 구분

비혼 동거자는 주로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와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로 구분되어 왔다(Hiekel et al., 2014; Rindfuss & VandenHeuvel, 1990; Smock, 2000).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는 동거를 결혼의 전조(precursor) 혹은 결혼으로 가는 디딤돌(stepping

stone), 결혼을 시험하기 위한 기반으로 개념화한다.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는 동거가 결혼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의 과정으로 동거하는 사람과 대안으로 동거하는 사람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결혼 계획이 있는 동거자는 결혼 계획이 없는 동거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계만족도와 안정성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loughby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비혼 동거의 유형을 ‘결혼 과정으로서의 동거’와 ‘결혼 대안으로서의 동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동거가 결혼의 과정으로서 여겨지는지, 혹은 대안으로서 여겨지는지 구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예를 들어, Heuveline and Timberlake(2004)는 동거의 상태를 1) 주변적인 상태(동거가 드물고, 위축될 가능성이 큰 상태), 2) 결혼의 서곡(동거를 결혼 전에 ‘시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 3) 결혼 과정의 단계(동거를 결혼 과정 자체로 인식), 4) 싱글의 대안(혼자보다는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선택지로서의 동거), 5) 결혼의 대안(결혼하지는 않지만, 동거를 통해 부부처럼 가족 형성), 6) 결혼과 구별 불가(결혼 여부에 따른 제도적 지원의 차이가 없어 사실상 결혼에 ‘무관심’하게 되는 상황)로 구체화하였다.

Casper and Bianchi(2001)는 결혼 계획과 결혼제도에 대한 신념을 중심으로, 동거하는 사람들을 1) 결혼의 대안, 2) 결혼의 전조, 3) 시험적 결혼, 4) 공동 주거 데이트 관계로 구분한다. 대부분이 결혼의 전조 범주에 속했는데, 이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파트너와 결혼할 계획과 결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공동 주거 데이트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관계와 파트너와의 양립 가능성 등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시험적 결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결혼할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결혼의 대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결혼 계획은 없지만, 그들의 현재 파트너와 계속 머무를 의향이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Hiekel et al.(2015)은 결혼 의향과 결혼에 대한 태도 지표를 바탕으로, 결혼 의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결혼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 중립, 부정적으로 나누어 5가지 유형의 동거자로 구분하였다. Buchler et al.(2009)은 결혼 의향과 이전의 결혼 상태를 가지고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1) 결혼한 적이 없지만 결혼 의향은 있는 혼전 동거자, 2) 결혼한 적도 없고 결혼 의향도 없는 장기 동거자, 3) 결혼한 적 있고, 결혼 의향은 없는 결혼을 포기하는 동거자, 4) 결혼한 적 있고 결혼 의향도 있는 결혼 이상적 동거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결혼 계획과 커플의 약혼 상태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의 동거자들을 구분한 연구(Willoughby et al., 2012)와 동거 선택의 동기에 근거하여 예비 동거, 대안동거, 대체동거, 편의동거로 구분한 연구(이연주, 2008)가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세부적인 유형은 다르지만 공통으로 결혼 계획 및 의향을 기준으로 하여, 동거 유형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결혼제도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혼 과정으로서의 동거와 대안으로서의 동거는 혼인신고 의향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혼인신고 의향을 기준으로 동거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제도 안으로 진입하려는 사람과 동거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특정 행동에 대한 강한 의도를 가진 개인은 실제로 행동을 수행하고 완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Fishbein & Ajzen, 1975). 선행연구는 결혼 의도가 있거나 결혼에 대해 기대하는 동거자는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해체의 가능성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Guzzo, 2009; McGinnis, 2003; Parker, 2021). 특히, 결혼 계획을 중심으로, 파트너와 결혼할 계획이 있는 동거자는 기혼자와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Kline et al., 2004). 의향은 행동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혼인신고 의향이 있는 사람은 결혼 행동으로 이어져 결혼제도 안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동거의 목적이 결혼을 염두에 둔 것인지, 제도적 혼인 관계와는 무관한 것인지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2. 연령대별 혼인신고 의향의 차이

동거는 모든 연령대에서 존재한다. 흔히 동거에 대해 청년층을 떠올리며, 동거에 대한 수용성도 청년층이 노년층보다 더 높다(김영란, 2021). 그러나 핀란드에서 1990년과 2003년 사이에 노년층 동거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Moustgaard & Martikainen, 2009), 최근 미국에서도 50세 이상으로 규정되는 노인들 사이에서 동거가 증가하였다(Smock & Schwartz, 2020). 동거는 초혼보다 재혼에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이연주, 2008),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에서도 동거라는 삶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의 비혼 동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대에 따라 비혼 동거자의 삶의 양상과 파트너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동거 커플 내에서 청년층의 동거와 노년층의 동거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Brown et al., 2005). 미국의 51세 이상 동거자 중 90%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Brown et al., 2006), 노년층 동거의 대다수는 재혼 동거임을 유추할 수 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노년층 동거자들은 청년층 동거자보다 더 높은 관계의 질과 안정성을 보고한다(Brown et al., 2012; Willoughby et al., 2011). 나이가 많은 성인의 동거 조합은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결혼이나 별거로 끝날 가능성이 낮았다(Brown et al., 2012; Brown & Wright, 2017). 동거와 결혼의 유사성은 인생의 후반기에 두드러지는데, 이 시기에 동거자와 기혼자의 지지, 의견 불일치, 불안정성과 같은 관계의 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Brown et al., 2022; Wright, 2020). 경제적 불이익은 청년층과는 달리 노년층 동거를 특징짓지 않는다는 점에서(Vespa, 2012) 차이가 존재한다. 종합하면, 청년층과 노년층의 동거 내 관계와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혼인신고 의향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노년층 동거자들은 청년층 동거자들보다 그들의 파트너와 결혼할 가능성이 더 낮아, 연령이 낮은 동거자들은 그들의 관계를 결혼의 전조로 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은 동거자들은 그들의 관계를 결혼의 대안으로 볼 가능성이 높았다(King & Scott, 2005). Qu(2003)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은 동거자들은 젊은 동거자들보다 결혼 기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Brown et al.(2012)은 생애과정 후기에는 동거가 결혼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년층 동거자는 결혼의 과정으로서의 동거를, 노년층 동거자들은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를 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에서도 연령대별로 비혼 동거를 하는 이유와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동거 이유에 대한 인식이 동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동거를 관계의 시험 차원에서 인식할 경우 동거를 찬성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윤 외, 2016). 청년 중 대학생의 동거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정서적, 경제적 독립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이고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는 어렵다(김지영, 2005). 반면, 40대 이상 집단은 동거를 하는 이유가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 ‘법적 문제’ 등의 이유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변수정, 2022). 노년층의 비혼 동거는 파트너와의 관계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동거하는 이유도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송효진 외, 2020). 이는 청년층은 결혼 과정으로서의 동거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노년층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연령대에 따라 동거의 이유와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령대를 청·중년층과 장·노년층을 나누어 살펴보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제 3 절 혼인신고 의향 관련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 관련 요인을 생애발달 요인, 사회경제적지위(SES) 요인, 가치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여러 복

합적 요인들로 인해 결혼을 고려할 것이며, 결국 합법적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Hatch, 2017). 이는 특정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의도가 있으며 이는 결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생애발달적인 이유 때문인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인지, 가치관 및 태도 때문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생애발달 요인

앞서 연령대별 비혼 동거자의 차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에 따라 혼인신고 의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비혼 동거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가 낮고, 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rown et al., 2012; Qu, 2003). 동거 관계에서 연령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결혼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거하는 이유가 결혼하기 전 시험의 과정이거나, 현재 경제적인 여건의 미충족일 경우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지만, 혼인 제도 및 문화에 대한 거부나, 상속과 같은 법적인 문제일 경우 혼인신고 의향이 없을 확률이 높다. 동거하는 이유에 따라 혼인신고 의향이 달라질 수 있다. 김영란 외(2021b)의 연구에서 연령별로 동거하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 혼인신고 의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혼인신고 의향의 유무를 살펴봄으로써, 생애발달적으로 혼인신고를 선택하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동거는 결혼을 대체하는 파트너십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출산과 함께 논의된다. 외국 연구들에서는 동거 관계 내에서 출산을 해도 계속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결과와 출산 의도가 있을 때 결혼제도로 진입한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미국에서 동거는 출산과 육아의 중요한 맥락이 되고 있는데(Gibson-Davis & Rackin, 2014; Kennedy & Bumpass, 2008), Lichter et al.(2014)은 2000년대 동안의 비혼 출산의 다수는 동거 커플이었고, 임신 후 동거가 임신 후 결혼을 능가했다고 본다. 동거자 중



일부는 결혼의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 관계가 적절하며, 동거가 실제로 자녀를 갖는 좋은 맥락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Musick, 2007). 즉, 일부 동거자는 출산 의향이 있거나 임신하여도 계속 동거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출산 의향이 있거나 출산할 경우 결혼제도로 진입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다. 자녀가 없는 동거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한 결과, 자녀를 두려는 대부분의 동거자는 결혼을 필수적인 전제로 생각하고 있었다(Sassler & Cunningham, 2008). Steele et al.(2005)은 동거 커플 내에서 임신은 결혼할 확률은 높이고 헤어질 확률은 줄인다고 보고하였다. 동거를 하고 있다거나 출산 전에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자녀가 생기면서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에게도 안정적인 환경을 주기 위한 결정인 것이다(Steele et al., 2006). 그들의 관계를 결혼의 서곡으로 보는 동거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을 확률도 높았다(Hiekel & Castro-Martín, 2014). 일부는 출산 의향이 있거나 임신을 할 경우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지속기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초기 몇 년 동안은 결혼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더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그 기대가 낮았다(Qu, 2003). 결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커플은 결혼으로 이행하고, 그렇지 않은 커플은 동거 관계로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연령과 자녀계획, 동거지속기간은 혼인신고 의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혼인신고 의향이 생애발달적인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사회경제적지위 요인은 동거 선택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의 중요한 관련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경제적 특성은 동거의 안정성과 결혼으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Manning & Smock, 2005). Smock et al.(2005)의 연구에서 동거자들에게 결혼의 전제조건이나 결혼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심층 면접을 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편안한 재정 상태에 도달해야 결혼에 관한 생각이 생긴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사회 계층과 직업적 계층이 낮을 경우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한다(Moustgaard & Martikainen, 2009). 그러나 고학력자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동거를 선택하며(Kalmijn, 2007),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동거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nning, 2020). 즉, 교육수준과 동거 선택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의 결과가 혼재되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교육수준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혼 동거하는 사람들 내의 교육수준과 혼인신고 및 혼인신고 의향 간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Kuperberg(2012)에 따르면, 불확실한 결혼 계획을 세운 동거자, 명확한 결혼 계획을 세운 동거자, 기혼자를 비교한 결과, 결혼 계획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더 컸고 소득도 더 낮았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결혼할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uo & Raley, 2016; Manning, 2020; Wiik et al., 2010). 교육 수준과 관련하여,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동거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결혼 의향도 높고, 결혼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비혼 동거자의 교육수준과 혼인신고 의향이 관련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계층의식도 동거 선택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동거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과 경제적 필요성이 언급되었고(Sassler & Miller, 2011), 경제적 수준이 낮을 경우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했다(Bumpass & Lu, 2000). 비혼 동거자 내에서도 사회경제적지위가 낮은 커플들은 결혼 전에 동거하고 출산할 가능성이 더 크며 결혼할 가능성도 작았다(Karney, 2021). 비혼 커플에 대한 질적 연구는 결혼 결정에 있어서 남성의 재정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Gibson-Davis et al., 2005; Smock et al., 2005). 종합

하면, 경제적인 이유로 동거를 선택하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근로여부는 자본 형성과 사회계층적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함께 논의해볼 수 있다. Smock et al.(2005)의 연구는 동거자들 사이에서 교육적인 성취가 있고, 근로를 하거나, 계층이나 자본 등에서 이점이 있을 경우 결혼의 우위가 더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근로를 하는 동거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적어 혼인신고 의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비혼 동거자의 근로여부와 혼인신고 의향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비혼 동거자들의 양상도 유럽 및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동거를 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았고(변수정, 2022), 취업, 학력 등 사회경제적 자원이 적은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동거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주, 2008). 한국에서도 경제적 자원이 적은 사람이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하고 있었다. 한국과 유사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동거를 결혼의 대안으로 선택하지만, 일본은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동거가 여전히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aymo et al., 2009). 복합적인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현재 한국에서의 비혼 동거자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지위 요인과 혼인신고 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가치관 요인

선행연구에서 결혼 의향과 동거 선택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가치관 및 태도를 지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larkberg et al.(1995)은 사람들이 동거를 할 것인지 또는 곧바로 결혼을 할 것인지를 선택에서 결혼 자체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일, 가족, 여가, 경제, 성역할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고,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동거를 선

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즉, 가족 형태에 대해 더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동거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가치관은 비혼 동거자 내에서의 혼인신고 의향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거 유형을 구분할 때, 대안으로서의 동거를 하는 사람의 동거 이유로 결혼제도와 결혼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포함된다. Hatch(2017)의 연구에서도 이성애 비혼 동거 커플이 성역할 기대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 위해 결혼제도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비혼 동거자가 다양한 가족에 대해 더 수용적이고 더 평등한 성역할 기대를 가질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없고 동거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동거 선택 및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과 가치관 요인을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동거 가능성에 대한 태도에 성별, 동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향후 수용 방향, 우리나라 혼인제도에 대한 생각, 가족 구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오정아, 변수정, 2019). 실제로 동거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기혼자보다 동거자 내에서 전통적 성역할분담이 적게 일어나고, 성역할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이연주, 2008).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혼인제도에 대한 가치관과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동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동거자의 자녀계획 유무와 관련된 논의와 유사하게,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혼인신고 의향과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출산 의향이 있을 경우 태어날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법률혼을 선택하는 것처럼, 자녀를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한곤(2018)은 만 20세~ 39세 미혼 여성이 자녀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부모 역할을 중시할수록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비혼 동거자들도 자녀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혼인신고 의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삶에 대한 가치관, 성역할태도,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혼인신고 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4. 인구학적 요인

성별과 동거지속기간에 따라, 비혼 동거자의 삶의 양상과 혼인신고 의향이 달라질 수 있다. 성별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동거 가능성이 크고 동거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이며, 혼전 동거 의식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오정아, 변수정, 2019; 양수진, 임춘희, 2012).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 과정으로서의 동거와 결혼 대안으로서의 동거에 대한 수용성이 더 낮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진미정, 성미애, 2021). 동거에 대한 태도와 수용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개방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성은 약혼을 할 가능성이 높고, 남성은 비공식적인 결혼 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Parker, 2021). 실제로 동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혼인신고 의향에 대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둘 다 혼인신고 의향이 높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혼인신고 의향의 관계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성별은 통제변수로 포함하고자 하였다.

## 제 3 장 연구방법

### 제 1 절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한 「가족과 출산 조사(2021년)」 자료,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수집한 「가족실태조사(2020년)」, 통계청에서 수집한 「사회조사(2006~2022년)」 자료를 사용하였다.<sup>1)</sup>

「가족과 출산 조사」는 출산과 결혼 행동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 경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21년도 조사부터 가족의 형태나 속성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법률적 혼인상태뿐만 아니라 실질적 혼인관계와 단순한 동거상태까지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단계 층화집락 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였으며, 전국 700개 조사구에서 추출한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49세 성인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최종 완료 표본은 9,999가구의 14,538명이다.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의 유무에 대해 ‘있다(동거, 사실혼, 법률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만 19~49세 비혼 동거자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가족실태조사」는 가족 가치관 및 인식과 가족관계 등 개인과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가족의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을 통한 가족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20년 조사는 가족 구성원 범주를 비혈연 동거인까지 확대하여, 혼인상태 문항에 혼인신고 관련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비혼 동거 가족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국에서 846개의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각 조사구로부터 13가구를 추출하였으며, 가구 부문 센서스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였다.

---

1) 사회조사(2006~2022년) 자료 중 2008년, 2009년, 2015년, 2017년, 2018년 조사는 모두 혼인신고 여부 문항을 포함하지 않아 분석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전국 10,997가구의 만 12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자 수는 22,173명이다. 혼인상태에 대한 문항에 ‘배우자 있음(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에 응답한 사람 중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조사」는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는 조사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 조사는 ‘보건, 가족, 사회 참여, 노동’에 대한 부분을, 2007년 조사는 ‘복지,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였다. 2010년도 조사부터는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을 조사하며, 짝수 해에는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을, 홀수 해에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을 조사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였으며, 2010년도 조사까지는 표본 가구 내의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그 이후 조사는 만 13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혼인상태에 대한 문항에 ‘배우자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혼인신고 여부’ 문항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1에서는 전체 자료를 사용하였고, 연구문제 1-2에서는 「가족과 출산 조사(2021년)」, 「가족실태조사(2020년)」, 「사회조사(2021년)」, 「사회조사(202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만 19~49세 비혼 동거자, 2020년에는 만 19세 이상 비혼 동거자를 비교·분석하였다. 「가족과 출산 조사(2021년)」의 경우, 조사단위가 만 19~49세 성인과 그 배우자였기 때문에 연령 범위를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번에서는 「가족실태조사(2020년)」와 「가족과 출산 조사(2021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개된 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IRB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IRB No. E2308/001-015).

<표 3-1> 분석자료 비교

	가족과 출산 조사 (2021)	가족실태조사 (2020)	사회조사 (2006~2022)
표본 추출 틀	2019년 인구주택총 조사	2017년 인구주택총조 사	-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2022년)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2018~2021년)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2012~2016년)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2010~2011년)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2006~2007년)
조사 대상	만 19~49세 성인과 그 배우자	만 12세 이상 가구원	- 만 13세 이상 가구원 (2011~2022년) - 만 15세 이상 가구원(2006~2010년)
연구 문제	1-1, 1-2, 2-1, 2-2	1-1, 1-2, 2-1, 2-2	1-1, 1-2

## 제 2 절 측정도구

### 1. 혼인신고 의향

비혼 동거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 있는지를 살펴본 변수이다. 「가족실태조사」에서는 혼인신고 의향 여부로 측정하였고, 의향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점수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혼인신고 의향을 ‘전혀 할 계획이 없다’,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할 것이다’, ‘확실히 할 것이다’, ‘모르겠다’로 응답 범주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분석을 위하여 ‘확실히 할 것이다’와 ‘아마 할 것이다’를 혼인신고 의향이 있다고 간주하여 1, 나머지를 0으로 재점수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소수(15명)여서 나머지 집단에 포함하였다.



## 2. 생애발달 요인

본 연구에서는 생애발달 요인으로 연령과 자녀계획 유무, 동거지속기간을 살펴보았다.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고, 연령대를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으로 구분하였다. 청년기본법과 노인복지법, 김성아와 정해식(2019)의 연구에 나와 있는 연령에 따라 만 19~34세는 청년층, 만 35~49세는 중년층, 만 50~64세는 장년층, 만 65세 이상은 노년층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였다. 자녀계획 유무는 「가족실태조사」와 「가족과 출산조사」에만 있는 문항이다. 자녀계획 유무는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점수화하여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특히, 「가족실태조사」에서 자녀계획 유무는 ‘귀하는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1, ‘없음’과 ‘생각해 본 적 없음’을 없다고 정의하여 0으로 점수화하여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동거지속기간은 「가족실태조사」와 「가족과 출산 조사」에만 있는 문항이다. 동거지속기간은 동거한 지 몇 년이 되었는지를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 3.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지위 요인으로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근로여부를 살펴보았다.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은 1,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0으로 점수화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조사별로 측정이 달랐는데, 「가족실태조사」에서는 ‘하층’, ‘중하층’, ‘중층’, ‘중상층’, ‘상층’의 5개의 범주로 측정한 전반적 계층의식 문항을 활용하였다. 「사회조사」에서는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의 6개의 범주로 측정한 계층의식 문항을 활용하였다.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가장 낮음’에서 ‘가장 높음’까지 10점 척도로 측정한 현재 가정의 경제수준 문항을 활용하였다. 분석할 때 조사별 비교를 위하여, ‘하층(1)’, ‘중층(2)’, ‘상층(3)’의 3가지로 재점수화하

여 분석하였다. 「가족실태조사」에서 ‘중하층’, ‘중층’, ‘중상층’은 ‘중층’으로 재점수화하였고, 「사회조사」에서 ‘하상’, ‘하하’는 ‘하층’으로, ‘중상’과 ‘중하’는 ‘중층’으로, ‘상상’과 ‘상하’는 ‘상층’으로 재점수화하였다.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1~3점은 ‘하층’, 4~7점은 ‘중층’, 8~10점은 ‘상층’으로 재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더 높은 계층에 속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여부는 「가족실태조사」와 「사회조사」의 경우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는지에 대해 이분형 변수로 측정하였다. 다만, 「가족과 출산 조사」는 경제활동 여부를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므로, ‘취업’은 1, ‘실업’과 ‘비경제활동’은 0으로 점수화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 4. 가치관 요인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 요인으로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성역할태도, 자녀인식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은 「가족실태조사」에 있는 문항으로, 독신, 동거, 이혼, 재혼, 계약결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 정도를 의미한다. ‘결혼하지 않아도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직장 등으로 주말부부가 된 경우 제외)에 동의한다’,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8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는 .80이었다.

성역할태도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가족실태조사」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족의 의사 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라는 4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돈 버는 일과 집안일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역문항)’,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가정생활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남성이라면 혼자 힘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4문항을 ‘전혀 동의안함(1점)’에서 ‘매우 동의함(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는 .65였다. 두 조사 모두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인식은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을 의미한다. 「가족실태조사」에서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역문항)’,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 있다(역문항)’,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역문항)’라는 6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는 .67이었다.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자녀는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자녀는 가족 간 유대와 애정을 강화한다’, ‘자녀는 내가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역문항)’,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 ‘자녀는 나의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6문항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는 .66이었다. 두 조사 모두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필요성이 높고 긍정적으로 자녀를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5. 인구학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통제변수)으로는 성별을 살펴보았다.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점수화하여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3-2> 변수에 대한 요약

요인	항목	신뢰도 계수
생애발달 요인	연령, 자녀계획 유무, 동거지속기간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근로여부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결혼하지 않아도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직장 등으로 주말부부가 된 경우 제외)에 동의한다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80
가치관 요인	<b>가족실태조사</b>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족의 의사 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b>가족과 출산 조사</b> 돈 버는 일과 집안일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역문항)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가정생활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남성이라면 혼자 힘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86
긍정적 자녀 인식	<b>가족실태조사</b>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역문항)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 있다(역문항)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역문항)	.67

<표 3-2> 변수에 대한 요약 (계속)

요인	항목	신뢰도 계수
가치관 요인	<b>가족과 출산 조사</b> 자녀는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자녀는 가족 간 유대와 애정을 강화한다 자녀는 내가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역문항)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 자녀는 나의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66
	인구학적 요인	

### 제 3 절 분석방법

첫째, 비혼 동거자의 비율과 시대적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 가중치와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하여, 각 조사에서 나타나는 비혼 동거 가구의 수와 백분율, 연령대에 따른 비혼 동거자의 비율을 파악하였다. 둘째, 비혼 동거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별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 사례 수와 백분율을 파악하였다. 셋째, 만 19세 이상 비혼 동거자를 대상으로, 혼인신고 의향과 연령에 따른 특성 차이와 연령대와 혼인신고 의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chi^2$ ) 검정과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의 사후검정은 Bonferroni 검정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의향 유무의 이항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실태조사」와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과 생애발달 요인,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가치관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여 로짓 계수와 승산비(Odds Ratio),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계산하였

다. 잔차의 등분산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로버스트 옵션을 추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승산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며, 승산비는 이러한 승산 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계효과는 다른 변수들을 평균값에 고정하였을 때, 특정 독립변수가 1 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에서 1로 코딩된 집단에 속할 기대 확률의 변화를 의미한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통해 회귀계수를 추정하며,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해 모형에 대한 가설 검정을 시행하였다. 우도비 검정은 절편만 포함한 모형의 로그-우도비와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포함한 로그-우도비를 비교하여 검정하는 방법이다.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 중 유의수준 하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때, 절편을 제외한 모든 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분석 프로그램은 SPSS 26.0과 STATA 17.0을 사용하였다.

## 제 4 장 연구결과

### 제 1 절 비혼 동거자의 비율과 특성

#### 1. 비혼 동거 가구의 비율과 추이

비혼 동거 가구의 비율과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비혼 동거 가구의 비율은 <표 4-1>과 같다. 모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전체 가구는 9,999가구이고, 동거 가구는 211가구(2.11%)였다. 배우자가 있는 5,749가구 중에서 동거 가구는 233가구(4.05%)였다. 같은 해에 자료수집을 진행한 2021년 「사회조사」의 전체 가구 수는 18,496가구이고, 동거 가구는 352가구(1.90%)였다. 배우자가 있는 11,511가구 중 동거 가구는 344가구(2.98%)였다. 즉, 2021년에 동거를 하고 있는 가구는 1.90~2.11%였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한 가구는 2.98~4.05%였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전체 가구는 10,997가구이고, 동거 가구는 185가구(1.68%)였다. 배우자가 있는 6,898가구 중에서 동거 가구는 186가구(2.70%)였다. 같은 해에 자료수집을 진행한 2020년 「사회조사」의 전체 가구는 18,543가구이고, 동거 가구는 324가구(1.74%)였다. 배우자가 있는 11,522가구 중 동거 가구는 324가구(2.81%)였다. 즉, 2020년에 동거를 하고 있던 가구는 1.68~1.74%였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동거를 한 가구는 2.70~2.81%였음을 알 수 있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회조사」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 가구 중 동거 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았을 때는 2022년(1.61%)이었고, 가장 높았을 때는 2007년(2.61%)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동거 가구의 비율이 가장 낮았을 때는 2010년(2.35%)이었고, 가장 높았을 때는 2007년(3.40%)이었다. 전체 사회조사 자료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가구 중 동거 가구의 비율은 1.61~2.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다고 한 가구 중 동거 가구의 비율은 2.35~3.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세 가지 분석자료를 살펴볼 때, 국내 비혼 동거 가구는 약 1.6~2.6% 정도로 추정된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동거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회조사」에서 가장 낮았다.

<표 4-1> 비혼 동거 가구의 비율

구분	연도	전체 가구			배우자 있는 가구		
		N	동거 가구	%	N	동거 가구	%
가족실태조사	2020	10,997	185	1.68	6,898	186	2.70
가족과 출산 조사	2021	9,999	211	2.11	5,749	233	4.05
	2022	18,445	297	1.61	11,266	295	2.62
사회조사	2021	18,496	352	1.90	11,511	344	2.98
	2020	18,543	324	1.74	11,522	324	2.81
	2019	18,503	334	1.80	11,650	328	2.81
	2016	18,422	354	1.92	12,219	356	2.91
	2014	17,664	342	1.93	11,903	341	2.86
	2013	17,664	308	1.75	12,109	310	2.56
	2012	17,424	352	2.02	12,029	352	2.92
	2011	17,112	321	1.87	12,051	310	2.57
	2010	17,112	293	1.71	12,163	286	2.35
	2007	30,449	795	2.61	22,231	756	3.40
2006	30,578	706	2.31	22,348	673	3.01	

주. 가구 가중치 및 표본 가중치 적용으로 사례 수가 달라질 수 있음.

다음으로, 연령대별 비혼 동거자 비율의 시대적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2>와 같다. 연도에 따른 비율 변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청년층(만 19~34세) 동거자의 비율은 2020년(1.25%)에 가장 낮았고, 2022년(2.22%)에 가장 높았다. 즉, 지금까지 각 연도에 해당하는 청년층 중에서 동거자 비율은 1.25~2.22%였음을 알 수 있다. 중년층(만 35~49세) 동거자의 비율은 2010년(1.28%)에 가장 낮았고, 2007년(2.24%)에 가장 높았다. 즉, 지금까지 각 연도에 해당하는 중년층 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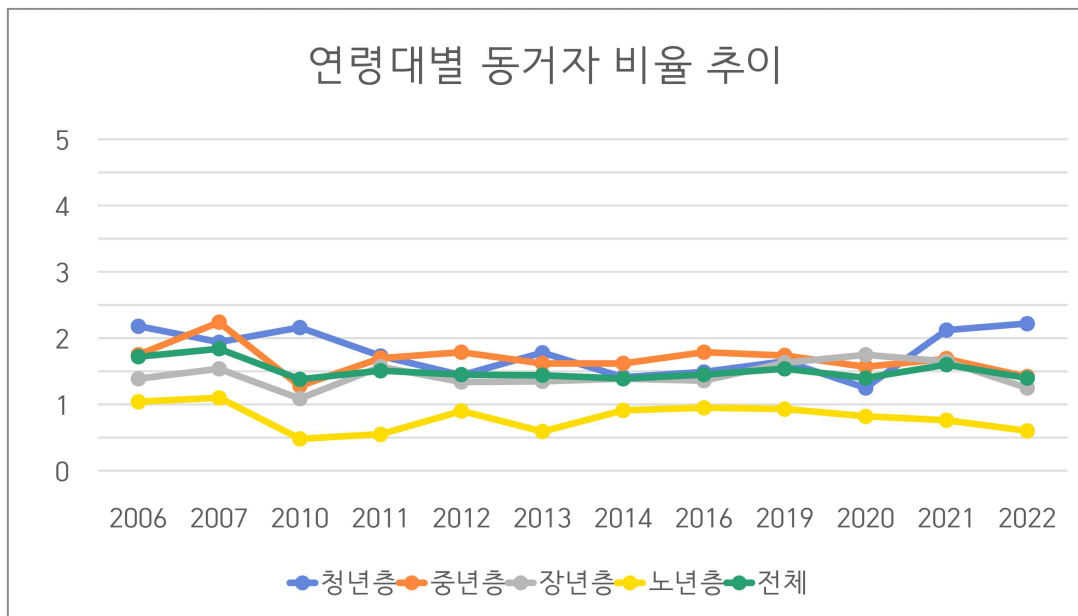


서 동거자 비율은 1.28~2.24%였음을 알 수 있다. 장년층(만 50~64세) 동거자의 비율은 2010년(1.09%)에 가장 낮았고, 2020년(1.75%)에 가장 높았다. 즉, 지금까지 각 연도에 해당하는 장년층 중에서 동거자 비율은 1.09~1.75%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2> 연령대별 동거자 비율 추이 (단위: %)

	2006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19	2020	2021	2022
청년층	2.18	1.94	2.16	1.73	1.44	1.78	1.41	1.49	1.65	1.25	2.12	2.22
중년층	1.75	2.24	1.28	1.70	1.79	1.62	1.62	1.79	1.74	1.57	1.69	1.42
장년층	1.39	1.54	1.09	1.57	1.34	1.35	1.39	1.36	1.63	1.75	1.65	1.25
노년층	1.04	1.10	0.48	0.55	0.90	0.59	0.91	0.95	0.93	0.82	0.76	0.60
전체	1.72	1.84	1.38	1.51	1.45	1.44	1.39	1.45	1.54	1.40	1.60	1.40

주.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한 비율임. 「사회조사(2006,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19, 2020, 2021, 2022)」 자료 사용. 청년층: 만 19~34세, 중년층: 만 35~49세, 장년층: 만 50~64세, 노년층: 만 65세 이상.



<그림 4-1> 연령대별 동거자 비율 추이

## 2. 비혼 동거자의 일반적 특성

여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로 비교한 비혼 동거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3>과 같다. 「가족과 출산 조사(2021년)」가 만 19~49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사회조사(2021년)」자료에서도 만 19~49세로 연령을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즉, 2020년도는 만 19세 이상, 2021년도는 만 19~49세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020년 「사회조사」는 482명, 2020년 「가족실태조사」는 323명, 2021년 「사회조사」는 288명,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는 300명의 비혼 동거자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는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혼인신고 의향, 자녀계획 유무, 동거지속기간, 전통적 성역할태도, 긍정적 자녀인식은 「가족실태조사」와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만 측정되었다.

먼저,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하여, 「가족실태조사」와 「가족과 출산 조사」 모두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각각 70.34%, 91.06%로 그렇지 않은 비율에 비해 더 높았다. 특히, 19-49세에서 혼인신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비혼 동거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가족실태조사」 기준 42.49세( $SD=13.33$ ), 「사회조사」 기준 47.54세( $SD=14.03$ )였다. 연령대를 나누어 살펴보면, 「가족실태조사」 기준 중년층(39.02%), 청년층(34.64%), 장년층(18.13%), 노년층(8.21%) 순으로, 「사회조사」 기준 장년층(35.66%), 중년층(31.50%), 청년층(21.80%), 노년층(11.04%)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별로 평균 연령과 연령대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노년층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은 일관되게 나타났다. 2021년 비혼 동거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가족과 출산 조사」 기준 32.81세( $SD=6.95$ ), 「사회조사」 기준 35.17세( $SD=7.63$ )였다. 연령대를 나누어 살펴보면, 「가족과 출산 조사」와 「사회조사」 모두 청년층(67.34%, 52.53%)이 중년층(32.66%, 47.47%)보다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계획 유무와 관련하여, 「가족실태조사」에서는 자녀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77.78%로 있다는 비율보다 더 높았던 반면,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있다는 비율이 73.34%로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더 높았다.

2020년에, 교육수준은 「가족실태조사」와 「사회조사」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 비율이 각각 53.55%, 68.43%로,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021년에, 교육수준은 「가족과 출산 조사」와 「사회조사」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각각 65.97%, 57.44%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020년에, 주관적 계층의식은 「가족실태조사」에서만 조사되었으며, 중층의 비율이 76.66%, 하층 비율이 22.13%로 대부분 중층 또는 하층에 속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2021년에,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중층(80.84%)이 가장 높았고, 「사회조사」에서는 중층(56.47%)과 하층(40.8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두 조사 모두 비혼 동거자의 약 90% 이상이 중층과 하층에 속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거자들은 전반적으로 사회계층이 낮다는 선행연구(Moustgaard & Martikainen, 2009) 결과와 일치한다. 즉,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비혼 동거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에, 근로여부는 「가족실태조사」와 「사회조사」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76.49%, 66.55%로, 하지 않는다는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021년에, 근로여부는 「가족과 출산 조사」와 「사회조사」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80.72%, 79.61%로, 하지 않는다는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은 「가족실태조사」에서만 측정되었으며, 평균 2.90점( $SD=0.75$ )으로 중간값보다 낮았다.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두 조사에서 각각 평균 2.22점( $SD=0.83$ ), 1.91점( $SD=0.46$ )으로 모두 중간값보다 낮았다.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동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Clarkberg et al., 1995)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였다. 긍정적인 자녀인식과 관련하여, 19세 이상은 평균 2.69점( $SD=0.69$ )으로 중간값

보다 낮았지만, 19-49세는 평균 2.66점( $SD=0.60$ )으로 중간값보다 높았다.

2020년에, 성별의 경우 「가족실태조사」에서는 여성(50.00%)과 남성(50.00%)의 비율이 같았고, 「사회조사」에서는 여성(48.55%)보다 남성(51.45%)이 조금 더 많았지만 대체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2021년에, 성별은 「가족과 출산 조사」와 「사회조사」에서 여성이 각각 52.88%, 52.33%로, 남성보다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동거지속기간의 경우, 「가족실태조사」는 평균 6.75년( $SD=9.28$ )이었으며, 5년 이상 동거를 지속한 비율이 40.55%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평균 동거지속기간은 2.40년( $SD=3.03$ )이었으며, 1년 ~ 5년 미만인 비율이 44.32%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실태조사」의 경우 비혼 동거자의 연령 범위가 19~85세이고, 「가족과 출산 조사」의 경우 범위가 19~49세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연령으로 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4-3> 자료별 비혼 동거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2020년 (만 19세 이상)				2021년 (만 19-49세)			
	사회조사		가족실태조사		사회조사		가족과 출산 조사	
	n/M	%/SD	n/M	%/SD	n/M	%/SD	n/M	%/SD
조사인원(명)	482	-	323	-	288	-	300	-
혼인신고 의향								
예	-	-	227	70.34	-	-	273	91.06
아니오	-	-	96	29.66	-	-	27	8.94
연령	47.54 (21-94)	14.03	42.49 (19-85)	13.33	35.17 (19-49)	7.63	32.81 (19-49)	6.95
연령대 구분								
청년층	105	21.80	112	34.64	151	52.53	202	67.34
중년층	152	31.50	126	39.02	137	47.47	98	32.66
장년층	172	35.66	59	18.13	-	-	-	-
노년층	53	11.04	27	8.21	-	-	-	-
자녀계획 유무								
예	-	-	72	22.22	-	-	220	73.34
아니오	-	-	251	77.78	-	-	80	26.66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30	68.43	173	53.55	123	42.56	102	34.03
대학교 졸업 이상	152	31.57	150	46.45	165	57.44	198	65.97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	-	71	22.13	118	40.83	36	11.92
중층	-	-	248	76.66	163	56.47	243	80.84
상층	-	-	4	1.21	8	2.69	22	7.24
근로여부								
예	321	66.55	247	76.49	229	79.61	242	80.72
아니오	161	33.45	76	23.51	59	20.39	58	19.28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	-	2.90 (1-5)	0.75	-	-	-	-
전통적 성역할태도	-	-	2.22 (1-5)	0.83	-	-	1.91 (1-4)	0.46
긍정적 자녀인식	-	-	2.69 (1-5)	0.69	-	-	2.66 (1-4)	0.60
성별								
여성	234	48.55	162	50.00	151	52.33	158	52.58
남성	248	51.45	161	50.00	137	47.67	142	47.42
동거지속기간(년)	-	-	6.75	9.28	-	-	2.40	3.03

<표 4-3> 자료별 비혼 동거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구분	2020년 (만 19세 이상)				2021년 (만 19-49세)			
	사회조사		가족실태조사		사회조사		가족과 출산 조사	
	n/M	%/SD	n/M	%/SD	n/M	%/SD	n/M	%/SD
동거지속기간 구분								
1년 미만	-	-	80	24.80	-	-	120	40.14
1년 ~ 5년 미만	-	-	112	34.65	-	-	133	44.32
5년 이상	-	-	131	40.55	-	-	47	15.54

주. 가구원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청년층: 만 19~34세, 중년층: 만 35~49세, 장년층: 만 50~64세, 노년층: 만 65세 이상.

## 제 2 절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

「가족실태조사」와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에 따른 생애발달 요인,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가치관 요인의 차이와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혼인신고 의향에 따른 차이

「가족실태조사」 자료에서 만 19세 이상 전체 비혼 동거자를 대상으로, 혼인신고 의향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4>와 같다. 먼저 생애발달 요인을 살펴보면, 혼인신고 의향이 있는 동거자의 평균 연령은 41.87세( $SD=12.05$ ), 그렇지 않은 동거자의 평균 연령은 51.48세( $SD=14.81$ )로, 혼인신고 의향이 있는 동거자가 있는 동거자에 비해 연령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5.86, p<.001$ ). 또한, 혼인신고 의향은 자녀계획 유무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chi^2=11.04, p=.001$ ). 즉, 자녀계획이 있는 동거자가 그렇지 않은 동거자보다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비율이 더 높았다. 사회경제적지위 요인을 살펴보면, 근로여부만이 혼인신고 의향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chi^2=12.99, p<.001$ ). 즉, 근로를 하는 동거자가 하지 않는 동거자에 비해,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비율이 더 높

았다. 교육수준( $\chi^2=0.86$ ,  $p=.35$ )과 주관적 계층의식( $t=-1.34$ ,  $p=.18$ )은 혼인신고 의향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가치관 요인을 살펴보면, 혼인신고 의향에 따라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t=0.52$ ,  $p=.60$ ), 전통적 성역할태도( $t=1.59$ ,  $p=.11$ ), 긍정적 자녀인식( $t=1.87$ ,  $p=.06$ )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 중 성별( $\chi^2=1.77$ ,  $p=.18$ )과 동거지속기간( $t=1.64$ ,  $p=.10$ ) 모두 혼인신고 의향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에 따른 차이 (N=323)

구분	있음 (n=214)		없음 (n=109)		$\chi^2/t$
	n/M	%/SD	n/M	%/SD	
생애발달 요인					
연령 <sup>h</sup>	41.87	12.05	51.48	14.81	5.86***
자녀계획 유무(1=예)	50	23.36	9	8.26	11.04**
동거지속기간	7.32	9.88	9.28	10.73	1.64
사회경제적지위(SES) 요인					
교육수준(1=대학교졸업이상)	90	42.06	40	36.70	0.86
근로여부(1=예)	173	80.84	68	62.39	12.99***
주관적 계층의식 <sup>h</sup>	1.79	0.43	1.72	0.45	-1.34
가치관 요인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2.85	0.77	2.90	0.74	0.52
전통적 성역할태도	2.21	0.78	2.37	0.92	1.59
긍정적 자녀인식	2.66	0.67	2.81	0.69	1.87
통제변수					
성별(1=남성)	109	50.93	47	43.12	1.77

주. 「가족실태조사(2020)」 자료 사용. <sup>h</sup>이분산.

\*\* $p<.01$ , \*\*\* $p<.001$ .

## 2. 연령에 따른 차이와 혼인신고 의향 간 관계

「가족실태조사」 자료에서 만 19세 이상 전체 비혼 동거자를 대상으로, 연령층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5>와 같다. 자녀계획 유무와 관련하여, 장·노년층은 자녀계획이 모두 없어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먼저, 생애발달 요인 중에서 연령( $t=-26.17$ ,

$p<.001$ )과 동거지속기간( $t=-7.59, p<.001$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장·노년층의 동거지속기간은 평균 14.72년( $SD=13.59$ )으로, 평균 4.51년( $SD=5.22$ )인 청·중년층보다 동거지속기간이 더 길었다. 사회경제적지위 요인과 관련해서는 교육수준만이 연령층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chi^2=28.44, p<.001$ ). 즉, 청·중년층이 장·노년층에 비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비율이 더 높았다. 가치관 요인과 관련하여, 연령층에 따라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t=5.23, p<.001$ )과 긍정적 자녀인식( $t=-4.45,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청·중년층이 장·노년층보다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점수는 높은 반면, 긍정적 자녀인식 점수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비혼 동거자의 연령층에 따른 차이 (N=323)

구분	청·중년층 (n=213)		장·노년층 (n=110)		$\chi^2/t$
	n/M	%/SD	n/M	%/SD	
생애발달 요인					
연령	36.94	7.94	60.93	7.54	-26.17***
자녀계획 유무(1=예)	—	—	—	—	—
동거지속기간 <sup>h</sup>	4.51	5.22	14.72	13.59	-7.59***
사회경제적지위(SES) 요인					
교육수준(1=대학교졸업이상)	108	50.70	22	20.00	28.44***
근로여부(1=예)	165	77.46	76	69.09	2.69
주관적 계층의식 <sup>h</sup>	1.80	0.42	1.71	0.46	1.79
가치관 요인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3.02	0.73	2.58	0.73	5.23***
전통적 성역할태도	2.22	0.82	2.35	0.85	-1.34
긍정적 자녀인식 <sup>h</sup>	2.61	0.71	2.93	0.55	-4.45***
통제변수					
성별(1=남성)	99	46.48	57	51.82	0.83

주. 「가족실태조사(2020)」 자료 사용. <sup>h</sup>이분산.

\*\*\* $p<.001$ .



연령대에 따라 혼인신고 의향의 비율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표를 산출하였다(<표 4-6> 참고). 그 결과, 연령대에 따른 혼인신고 의향의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36.42$ ,  $p<.001$ ).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혼인신고 의향은 청·중년층과 장·노년층의 비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층과 중년층은 혼인신고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으며, 장년층과 노년층은 혼인신고 의향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6> 연령대별 혼인신고 의향 차이 (N=323)

		있음		없음		$\chi^2$
		n	%	n	%	
연령대	청년층 <sup>a</sup>	72	80.90	17	19.10	36.42***
	중년층 <sup>a</sup>	92	74.19	32	25.81	
	장년층 <sup>b</sup>	39	50.65	38	49.35	
	노년층 <sup>b</sup>	11	33.33	22	66.67	
전체		214	66.25	109	33.75	

주. 청년층: 만 19~34세, 중년층: 만 35~49세, 장년층: 만 50~64세, 노년층: 만 65세 이상.

\*\*\* $p<.001$ .

### 3. 혼인신고 의향 관련 요인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연령대를 청·중년층(19~49세)과 장·노년층(50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7>과 같다. 먼저, 청·중년층의 혼인신고 의향에 관련된 요인을 살펴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18.57$ ,  $p=.046$ ).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 $b=-0.79$ ,  $p=.045$ )과 주관적 계층의식( $b=0.94$ ,  $p=.017$ )과 같은 사회경제적지위 요인만이 혼인신고 의향에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

장·노년층의 혼인신고 의향에 대한 연구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만 50세 이상 비혼 동거자는 모두 자녀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장·노년층의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31.74$ ,  $p<.001$ ). 생애발달 요인과 혼인신고 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령( $b=-0.12$ ,  $p=.002$ )과 동거지속기간( $b=0.07$ ,  $p=.001$ )은 장·노년층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에 유의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노년층 비혼 동거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동거지속기간이 길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중에서는 근로여부만이 혼인신고 의향에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b=1.15$ ,  $p=.020$ ). 근로를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 가치관 요인 중에서는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b=-0.87$ ,  $p=.024$ )과 긍정적 자녀인식( $b=-1.29$ ,  $p=.010$ )이 혼인신고 의향에 유의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이 낮을수록, 자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을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

<표 4-7> 혼인신고 의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가족실태조사」

	청·중년층 (n=213)			장·노년층 (n=110)		
	<i>b</i>	<i>robust</i> <i>s.e.</i>	exp( <i>b</i> )	<i>b</i>	<i>robust</i> <i>s.e.</i>	exp( <i>b</i> )
생애발달 요인						
연령	-0.03	0.03	0.97	-0.12**	0.04	0.89
자녀계획 유무(1=예)	0.77	0.46	2.17	—	—	—
동거지속기간	0.06	0.03	1.06	0.07**	0.02	1.07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교육수준(1=대학교졸업이상)	-0.79*	0.39	0.46	0.11	0.77	1.12
근로여부(1=예)	0.32	0.42	1.38	1.15*	0.49	3.15
주관적 계층의식	0.94*	0.40	2.57	-0.77	0.47	0.46
가치관 요인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0.22	0.27	0.81	-0.87*	0.38	0.42
전통적 성역할태도	-0.32	0.25	0.73	-0.35	0.25	0.71
긍정적 자녀인식	-0.01	0.30	0.99	-1.29*	0.50	0.28
통제변수						
성별(1=남성)	0.55	0.37	1.74	0.29	0.51	1.34
상수	1.58	1.95		13.24***	3.64	
-2LogLikelihood	-105.88			-57.24		
Wald chi <sup>2</sup>	18.57*			31.74***		
Pseudo R <sup>2</sup>	.08			.24		

주. exp(*b*) = Odds Ratio. 청·중년층: 만 19~49세, 장·노년층: 만 50세 이상.

\**p*<.05, \*\**p*<.01, \*\*\**p*<.001.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변수들의 상대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의 한계효과를 <표 4-8>에 제시하였다. 청·중년층 비혼 동거자의 로짓 한계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13% 감소하며, 주관적 계층이 한 층 높다고 인식할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15% 증가한다.

장·노년층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에 대한 로짓 한계효과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1세 높을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2% 감소하며, 동거지속기간이 1년 길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1% 증가한다. 근로를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20% 증가하며,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이 1점 높을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15% 감소하며, 긍정적 자녀 인식이 1점 높

을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22% 감소한다.

<표 4-8> 비혼 동거자의 로짓 한계효과: 「가족실태조사」

	청·중년층 (n=213)		장·노년층 (n=110)	
	dy/dx	s.e.	dy/dx	s.e.
생애발달 요인				
연령	0.00	0.00	-0.02***	0.01
자녀계획 유무(1=예)	0.12	0.06		
동거지속기간	0.01	0.01	0.01***	0.00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교육수준(1=대학교졸업이상)	-0.13*	0.06	0.02	0.13
근로여부(1=예)	0.05	0.07	0.20*	0.08
주관적 계층의식	0.15*	0.06	-0.13	0.08
가치관 요인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0.03	0.04	-0.15*	0.06
전통적 성역할태도	-0.05	0.04	-0.06	0.04
긍정적 자녀인식	0.00	0.05	-0.22**	0.08
통제변수				
성별(1=남성)	0.09	1.50	0.05	0.09

주. 「가족실태조사(2020)」 자료 사용. dy/dx = 한계효과. 청·중년층: 만 19~49세, 장·노년층: 만 50세 이상.

\* $p < .05$ , \*\* $p < .01$ , \*\*\* $p < .001$ .

다음으로,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청·중년층(19~49세)의 혼인신고 의향과 생애발달 요인,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가치관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9>와 같다. 먼저, 청·중년층의 혼인신고 의향에 관련된 요인을 살펴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27.79$ ,  $p=.001$ ). 생애발달 요인과 혼인신고 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녀계획 유무는 청·중년층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에 유의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b=1.18$ ,  $p=.001$ ). 자녀계획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중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만이 혼인신고 의향에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b=1.07$ ,  $p=.015$ ).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 한편, 가치관 요인은 전통적 성역할태도( $b=-0.59$ ,  $p=.08$ ), 긍정적 자녀인식( $b=0.49$ ,  $p=.16$ )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성별은 혼인신고 의향에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b=0.07$ ,  $p=.030$ ). 여성에 비해 남성이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

<표 4-9> 혼인신고 의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가족과 출산 조사」  
( $N=300$ )

	청·중년층		
	<i>b</i>	<i>robust s.e.</i>	<i>exp(b)</i>
생애발달 요인			
연령	-0.04	0.03	0.96
자녀계획 유무(1=예)	1.18**	0.35	3.24
동거지속기간	0.07	0.05	1.07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교육수준(1=대학교졸업이상)	0.69	0.42	1.99
근로여부(1=예)	0.12	0.38	1.12
주관적 계층의식	1.07*	0.44	2.91
가치관 요인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	—	—
전통적 성역할태도	-0.59	0.33	0.56
긍정적 자녀인식	0.49	0.35	1.64
통제변수			
성별(1=남성)	1.24*	0.57	3.47
상수	-0.13	1.58	
-2LogLikelihood		-84.53	
Wald $\chi^2$		27.79**	
Pseudo $R^2$		.20	

주.  $\exp(b)$  = Odds Ratio.

\* $p<.05$ , \*\* $p<.01$ .

청·중년층 비혼 동거자의 로짓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0>과 같다. 자녀계획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11% 증가하며, 주관적 계층이 한 층 높다고 인식할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9% 증가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9% 증가한다.

<표 4-10> 비혼 동거자의 로짓 한계효과: 「가족과 출산 조사」 (N=300)

	청·중년층	
	dy/dx	s.e.
생애발달 요인		
연령	0.00	0.00
자녀계획 유무(1=예)	0.11**	0.03
동거지속기간	0.01	0.00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교육수준(1=대학교졸업이상)	0.06	0.03
근로여부(1=예)	0.01	0.03
주관적 계층의식	0.09*	0.03
가치관 요인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	-
전통적 성역할태도	-0.05	0.03
긍정적 자녀인식	0.04	0.03
통제변수		
성별(1=남성)	0.09**	0.03

주. 「가족과 출산 조사(2021)」 자료 사용. dy/dx = 한계효과.

\* $p < .05$ , \*\* $p < .01$ .

종합하면, 「가족실태조사」에서 청·중년층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 관련 요인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지위 요인(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만이 유의한 설명요인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반면, 장·노년층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 관련 요인 분석 결과, 생애발달 요인(연령, 동거지속기간), 사회경제적지위 요인(근로여부), 가치관 요인(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긍정적 자녀인식)이 유의한 설명요인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동거지속기간이 길수록, 근로를 하는 사람이,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이 낮을수록, 자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을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청·중년층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 분석 결과, 생애발달 요인(자녀계획 유무)과 사회경제적지위 요인(주관적 계층의식)만이 유의한 설명요인이었다. 자녀계획이 있는 사람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제 1 절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배우자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비혼 동거자로 정의하여, 한국의 비혼 동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집합적 수준에서 한국 내 비혼 동거자의 규모와 연령대별 시대적 추이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국 단위 조사자료인 「가족과 출산 조사」, 「가족실태조사」, 「사회조사」를 사용하여 비혼 동거자의 비율 및 추이와 특성을 파악하였다. 개인적 수준에서는 연령대별로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을 살펴보고, 관련이 있는 요인을 생애발달 요인, 사회경제적지위 요인, 가치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족과 출산 조사」, 「가족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청·중년층과 장·노년층의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만 19세 이상 전체 가구 중 비혼 동거 가구의 비율이 3%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파트너십을 제외한 OECD의 평균 동거율이 9.97%라는 점(OECD, 2016)에 비해, 현저히 작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2)</sup> 비혼 동거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여성가족부, 2021a)와는 달리, 실제로 동거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혼인에 대한 관념과 동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

---

2) OECD Family Database의 동거율과 기타 파트너십 비율 지표에서 ‘결혼 혹은 등록된 파트너십’과 ‘동거’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경우, 사실혼(de facto marriages; common law)을 동거에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한국의 동거율을 OECD 평균 동거율과 비교하였다.

혼 동거를 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동거 관계를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전체 노인(만 65세 이상) 인구 중 동거자의 비율은 2010년(0.48%)에 가장 낮았고, 2007년(1.10%)에 가장 높았다. 즉, 지금까지 각 연도에 해당하는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동거자의 비율은 0.48~1.10%였음을 알 수 있다. 전 기간에서 동거자 비율은 노년층이 가장 낮았다. 노년층은 동거에 대한 수용성이 낮다는 김영란(2021)의 연구를 고려했을 때, 실제로 동거로의 이행이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러한 낮은 비율은 응답 편향에 기인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동거 중인 응답자는 이혼과 동거 모두 응답할 수 있지만 복수 응답을 허용하지 않기에, 동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혼인상태 응답을 선택했을 수 있다(Brown et al., 2006). 이에 따라 노년층 동거 비율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사별로 비혼 동거 가구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 연도나 조사단위 및 비혼 동거자 정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혼 동거 가구의 비율은 「가족과 출산 조사」가 2.11%, 「가족실태조사」가 1.68%, 「사회조사」가 각각 1.90%, 1.74%였다. 먼저 조사 연도의 경우, 「가족과 출산 조사」와 「가족실태조사」는 각각 2021년도, 2020년도 조사로 연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조사단위 및 비혼 동거자 정의의 경우, 「가족과 출산 조사」는 만 19~49세 인구가 조사단위였고,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동거, 사실혼, 법률혼)’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비혼 동거자를 정의하였다. 「가족실태조사」는 ‘배우자 있음(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비혼 동거자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조사」는 단순히 배우자가 있는 사람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비혼 동거자로 정의하였다. 「가족과 출산 조사」는 조사단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혼 동거자를 정의하는 범위가 「가족과 출산 조사」가 가장 넓었고, 동거자의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비혼 동거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비율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별로 동거자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추후에 비혼 동거 관련 연구를 할 때, 비혼 동거자의 정의와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구 구성이 복잡해짐에 따라 동거 관계에 대한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Smock & Schwartz, 2020). 한국 사회에서 혼인상태를 파악할 때, 동거를 결혼과 동등한 선택지로 구성한다면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동거자의 비율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변수정, 2021a). 사회적 바람직성이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에서는 결혼의 대안으로서 동거보다 과정으로서 동거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다.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하여, 「가족실태조사」와 「가족과 출산 조사」 모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혼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유럽과 달리, 아직까지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결혼의 과정으로서의 동거가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는 비혼 동거 후 대부분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동거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는 65.7%가 동의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36.9%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의 전 단계로서의 동거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변수정, 2021b). 한국 사회에서 동거는 결혼의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선택하는 대안 동거의 성격을 지닌다는 이연주(2008)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결혼 의향을 가지고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Cherlin(2004)은 결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약화와 이로 인한 동거와 결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결혼의 탈제도화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동거는 결혼의 전 단계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동거가 규범적 가족제도의 대안이 아닌, 전통적 결혼제도 진입의 한 경로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결혼제도의 대안으로서 동거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면, 또는 결혼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동거가 선택되고 있다면, 동거를 선택하는 이들이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한 비계(scaffolding)를 마련할 정책적, 제도적 제안이 필요하다

(Sassler & Miller, 2023).

셋째, 청·중년층과 장·노년층의 동거 양상은 다르다. 본 연구는 개인적 수준에서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혼인신고 의향에 따라 어떠한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혼인신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연령이 더 낮고, 근로자 비율이 높고, 자녀계획이 있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계획이 있는 사람이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결혼과 출산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 남녀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결과(여성가족부, 2021a)와도 일관된다. 이는 저출산 정책에서 비혼 동거가구를 포함하고자 할 때, 한국에서 비혼 출산이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혼인신고 의향에 따라 연령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토대로, 연령대와 혼인신고 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년층과 중년층은 혼인신고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고, 장년층과 노년층은 혼인신고 의향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장·노년층은 관계를 결혼의 대안으로 보는 경향이 더 높은 반면, 청·중년층은 관계를 결혼의 서곡으로 보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King & Scott, 2005)와 일치한다. 또한 결혼한 적이 없는 동거자들이 그렇지 않은 동거자들에 비해 파트너와 결혼할 것이라고 기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Qu, 2003)와 20~30대에 비해 40~50대의 비혼 동거는 결혼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가 아닌 적극적 선택의 결과라는 연구(김영란 외, 2021b)를 함께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비혼 동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초혼일 가능성이 높아 결혼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고, 동거 관계를 결혼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여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중년층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하여, 생애발달 요인과 사회경제적지위 요인이 유의한 설명요인이었다. 「가족실태조사」에서는 사회경제적지위 요인(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이,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생애발달 요인(자녀계획 유무)과 사회경제적지위 요인(주관

적 계층의식이) 청·중년층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에 대한 유의한 설명 요인이었다. 자녀계획이 있는 동거자가,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이는 자녀 계획이 있는 동거자는 결혼을 필수 전제로 생각한다는 연구결과(Sassler & Cunningham, 2008)와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은 동거 커플은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Karney, 2021)와 일치한다. 즉,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사이에서 자녀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크고,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법률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낮았다. 이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Kuo & Raley, 2016)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고학력자들 사이에서 동거가 널리 퍼지고 있고(Manning, 2020),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교육수준이 정적인 방향성을 나타냈음을 고려할 때, 추후 대표성 있는 조사에서 교육수준과 혼인신고 의향 간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청·중년층은 동거 관계에서 결혼제도로 진입할 때, 사회경제적지위 요인과 출산 의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하고자 하는 청·중년층 동거 커플이 계획한 것보다 빠르게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결혼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상황 때문에 동거를 하고 있는 커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만 30~34세 동거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결혼식을 한 비율도 높다는 점(변수정, 2022)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법률혼 관계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출산 의향이 있는 동거자에게 결혼제도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거나, 비혼 동거 관계 내에서도 출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형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장·노년층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생애발달 요인(연령, 동거지속기간), 사회경제적지위 요인(근로여부), 가치관 요인(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 긍정적 자녀인식)이 유의한 설명요인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동거지속기간이 길수록, 근로를 하는 사람이, 다양한 삶에 대한 수용성이 낮을수록, 자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을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연령이 높으면 굳이 법적 제도인 혼인신고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동거자가 취업하고 있을 때 결혼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Smock et al., 2005)와 유사한 맥락에서 근로여부가 유의한 요인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청·중년층과는 달리, 가치관 요인이 유의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도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더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질수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상태로 남는다는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자녀를 인식할수록 혼인신고 의향이 없을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장·노년층 동거의 특성과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의 51세 이상 동거자 중 90%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Brown et al., 2006), 장·노년층의 경우 이미 자녀가 존재하고 이혼 및 사별 후 동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녀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동거 관계에서 상속과 같은 법적인 문제와 얽히고 싶지 않아 대안으로서의 동거로 남고자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장·노년층 비혼 동거 관계는 수술에 대한 보호자 동의 등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할 때, 장·노년층 비혼 동거 관계에 특히 더 주목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청·중년층의 분석결과와 장·노년층의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청·중년층과 장·노년층의 동거 양상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녀계획이 있는 청·중년층은 과정으로서의 동거를 선택하지만, 자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장·노년층은 대안으로서의 동거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연령층별 동거 양상은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연령대에 따라 혼인신고 의향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함께 고려했을 때, 비혼 동거자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 있어서 연령을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여성의 가임 연령이 약 15-49세라는 점을 고려

하여, 연령을 구분하여 청·중년층 동거자의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제 2 절 의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비혼 동거자는 배우자나 애인 및 파트너가 있는 사람 중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파트너를 배우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단순 동거는 파악할 수 없었다. 동거가 처음에는 집중적인 데이트 형태로 시작하며 결혼 의향이 없다는 연구(Parker, 2021; Sassler & Miller, 2023)를 고려했을 때, 연애의 과정으로서의 동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비혼 동거를 연애의 과정으로서의 단순 동거, 혼인신고 의향이 있는 결혼 과정으로서의 동거, 혼인신고 의향이 없는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 등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비혼 동거 연구를 할 때 혼인상태 문항을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다양하게 파악하여, 동거자가 가족 형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분석자료의 표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계가 있다. 「가족 실태조사」와 「가족과 출산 조사」의 동거자 비율은 약 3% 미만이었으며, 본 연구는 적은 수의 표본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동거 여부를 함께 조사하여, 동거에 대한 대표성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동거자들을 대상으로 이성애 동거와 동성애 동거인지는 명확히 구별할 수가 없었다. 사용한 자료들이 모두 가구 단위의 조사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커플이 모두 응답한 경우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모두 이성애 동거인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다.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에서는 동성 간 동거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의 이성 간 동거와 동성 간 동거 연구를 비교해서 분석해볼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횡단 분석으로, 비혼 동거자들의 특성과 혼인신고 의향 변화는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비혼 동거자의 혼인신고 의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요인이 관련이 있는지 종단 분석을 통해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국외에서는 동거가 만연하여 동거자에 대한 패널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패널 자료뿐 아니라 조사 자체가 많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패널조사에서 동거를 함께 조사하여 동거자에 대한 종단 분석도 해 볼 것을 제안한다. 분석과 관련하여, 추가로 후속 연구에서는 커플 단위의 분석을 해 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비혼 동거자 개인 단위로 분석을 진행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동거 커플 내의 관계의 질과 안정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커플 단위의 다층 분석을 통해 동거 커플과 기혼 커플 간 관계에서의 차이와 동거 커플 내 혼인신고 의향이 일치하는지 등 여러 분석을 해 본다면 동거에 대한 더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국내 비혼 동거자의 연구 및 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사용한 전국 단위의 동거자 규모와 연령대별 구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국 내 비혼 동거자의 비율과 특성을 대략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혼 동거자를 측정하는 각 조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조사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향후 조사 및 측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비혼 동거 유형을 나누어 동거자 내부의 이질성을 밝힘으로써, 동거자 집단을 단일한 집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혼인신고 의향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생활동반자법 논의와 저출산 정책에서의 비혼 동거, 그리고 가족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였고, 이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참 고 문 헌

- 권미경, 지영숙(2005). 동거(同居)에 대한 고찰. **생활과학**, 8, 1-19.
- 김상용, 안문희(2022).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중앙법학**, 24(3), 7-51.
- 김성아, 정해식(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70, 95-104. <https://dx.doi.org/10.23062/2019.04.9>
- 김영란(2021). 비혼동거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18.
- 김영란, 주재선, 정가원, 배호중, 선보영, 최진희, ..., 이진숙(2021a).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20-56.
- 김영란, 주재선, 정가원, 배호중, 선보영, 최진희, ..., 이진숙(2021b).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부가 연구 -**.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20-57.
- 김원정, 김순남(2018). 동거 가구의 변화와 한국의 결혼·가족제도: 1995-2015 혼인신고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0(4), 61-90. <https://doi.org/10.21478/family.30.4.201812.003>
- 김지영(2005). 동거를 통해 본 성별 관계의 지속과 변형 -20~30대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한곤(2018). 여성들의 비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민족문화논총**, 69, 273-301. <https://dx.doi.org/10.15186/ikc.2018.8.31.273>
- 김희연(2022). **가족생활의 개인화와 친밀성의 탈제도화 - 이성애 청년 동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윤, 장영은, 이희운(2016). 20-30대 미혼남녀의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4(2), 249-268. <https://doi.org/10.21479/kaft.2016.24.2.249>
-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 (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50.
- 변수정(2021a). **비혼동거 가족 실태 조사의 의의와 통계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1-24.
- 변수정(2021b). 결혼 안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보건복지포럼**, **293**, 8-21. <https://doi.org/10.23062/2021.03.2>
- 변수정(2022). 혼인관계와 동거 관계의 주요 특징. **보건복지포럼**, **308**, 21-34. <https://doi.org/10.23062/2022.06.3>
- 송인하, 임춘희(2014). 지속성을 갖는 동거관계에 대한 이상형적 이론구성. **여성연구**, **87**(2), 45-98.  
<https://doi.org/10.33949/tws.2014.87.2.002>
- 송효진, 선보영, 성경, 정가원, 박수경(2020). **젠더 관점에서의 고령사회 가족 관련 법·제도 대응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수진, 임춘희(2012). 성인초기 개인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자아분화가 혼전동거 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4), 173-198.
- 여성가족부(2021a).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tSn=704893](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tSn=704893)
- 여성가족부(2021b).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1~2025)**.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tSn=704886](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tSn=704886)
- 오정아, 변수정(2019).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한 미혼남녀의 동거의도 예측모형 탐색. **사회과학연구**, **30**(2), 163-179.  
<https://doi.org/10.16881/jss.2019.04.30.2.163>
- 이병화(2020). 등록파트너십을 포함하는 혼외동거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비교법적 동향 분석. **국제사법연구**, **26**(2), 537-615.  
<https://doi.org/10.38131/kpilj.2020.12.26.2.537>
- 이연주(2008). 동거와 한국가족: 전국조사에서 나타난 동거자의 특성. **한국인구학**, **31**(2), 77-100.



- 이효재(1991).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이희윤, 박정윤(2017). 합의적 질적분석을 활용한 동거 가치관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5(1), 47-68.  
<https://doi.org/10.21479/kaft.2017.25.1.47>
- 조성봉(2017). 관계 내 헌신(commitment)의 개념적 고찰: 동거 및 결혼 관계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4), 735-760.  
<https://doi.org/10.21479/kaft.2017.25.4.735>
- 조추용(2012). 황혼동거에 나타난 사랑과 생활. **노인복지연구**, 58, 29-59.  
<https://doi.org/10.21194/kjgsw..58.201212.29>
- 진미정, 성미애(2021). 청년층의 동거 경험 및 동거 수용성과 결혼 의향의 관련성. **가정과삶의질연구**, 39(2), 1-14.  
<https://doi.org/10.7466/JFBL.2021.39.2.1>
- 통계청(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 (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act=view&list\\_no=386249](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act=view&list_no=386249)
- 표준국어대사전(2023). '동거'.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 Becker, G. S.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S. L., & Wright, M. R. (2017). Marriage, cohabitation, and divorce in later life. *Innovation in Aging*, 1(2), 1-11.  
<https://doi.org/10.1093/geroni/igx015>
- Brown, S. L., Bulanda, J. R., & Lee, G. R. (2005). The significance of nonmarital cohabitation: Marital status and mental health benefits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60(1), S21-S29.  
<https://doi.org/10.1093/geronb/60.1.S21>
- Brown, S. L., Bulanda, J. R., & Lee, G. R. (2012). Transitions into

- and out of cohabitation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4), 774–793.  
<https://doi.org/10.1111/j.1741-3737.2012.00994.x>
- Brown, S. L., Lee, G. R., & Bulanda, J. R. (2006). Cohabitation among older adults: A national portrait.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61(2), S71–S79.  
<https://doi.org/10.1093/geronb/61.2.S71>
- Brown, S. L., Manning, W. D., & Payne, K. K. (2017). Relationship quality among cohabiting versus married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38(12), 1730–1753.  
<https://doi.org/10.1177/0192513X15622236>
- Brown, S. L., Manning, W. D., & Wu, H. (2022). Relationship quality in midlife: A comparison of dating, living apart together, cohabitation, and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4(3), 860–878. <https://doi.org/10.1111/jomf.12813>
- Buchler, S., Baxter, J., Haynes, M., & Western, M. (2009). The 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habiters in Australia: Towards a typology of cohabiting couples. *Family Matters*, 82, 22–29.  
<https://search.informit.org/doi/10.3316/informit.817701664223477>
- Bumpass, L., & Lu, H. H. (2000). Trends in cohabitation and implications for children's family contexts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Studies*, 54(1), 29–41.  
<https://doi.org/10.1080/713779060>
- Casper, L. M., & Bianchi, S. M. (2001).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American family*. Sage Publications.
- Cherlin, A. J. (2004).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848–861.  
<https://doi.org/10.1111/j.0022-2445.2004.00058.x>

- Clarkberg, M., Stolzenberg, R. M., & Waite, L. J. (1995). Attitudes, values, and entrance into cohabitational versus marital unions. *Social Forces*, *74*(2), 609–632. <https://doi.org/10.1093/sf/74.2.609>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Reading, MA: Addison-Wesley.
- Gibson Davis, C. M., Edin, K., & McLanahan, S. (2005). High hopes but even higher expectations: The retreat from marriage among low income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5), 1301–1312.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5.00218.x>
- Gibson Davis, C., & Rackin, H. (2014). Marriage or carriage? Trends in union context and birth type by edu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3), 506–519. <https://doi.org/10.1111/jomf.12109>
- Guzzo, K. B. (2009). Marital intentions and the stability of first cohabitat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30*(2), 179–205. <https://doi.org/10.1177/0192513X08323694>
- Hatch, A. (2017). Saying “I Don’t” to matrimony: An investigation of why long-term heterosexual cohabitators choose not to marry. *Journal of Family Issues*, *38*(12), 1651–1674. <https://doi.org/10.1177/0192513X15576200>
- Hellstrand, J., Nisen, J., & Myrskylä (2022). Less partnering, less children, or both? Analysis of the drivers of first birth decline in Finland since 2010.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8*, 191–221. <https://doi.org/10.1007/s10680-022-09605-8>
- Heuveline, P., & Timberlake, J. M. (2004). The role of cohabitation in family formation: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214–1230. <https://doi.org/10.1111/j.0022-2445.2004.00088.x>
- Hiekel, N., & Castro Martín, T. (2014). Grasping the diversity of

- cohabitation: Fertility intentions among cohabiters across Europ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3), 489–505.  
<https://doi.org/10.1111/jomf.12112>
- Hiekel, N., Liefbroer, A. C., & Poortman, A. R. (2014). Understanding diversity in the meaning of cohabitation across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0(4), 391–410.  
<https://doi.org/10.1007/s10680-014-9321-1>
- Hiekel, N., Liefbroer, A. C., & Poortman, A. R. (2015). Marriage and separation risks among German cohabiters: Differences between types of cohabiter. *Population Studies*, 69(2), 237–251. <https://doi.org/10.1080/00324728.2015.1037334>
- Kalmijn, M. (2007). Explaining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marriage, cohabitation, and divorce in Europe, 1990 - 2000. *Population Studies*, 61(3), 243–263.  
<https://doi.org/10.1080/00324720701571806>
- Karney, B. R. (2021). Socioeconomic status and intimate relationship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72, 391–414.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051920-013658>
- Kennedy, S., & Bumpass, L. (2008). Cohabitation and children's living arrangements: New estimates from the United States. *Demographic Research*, 19, 1663–1692.  
<https://doi.org/10.4054/demres.2008.19.47>
- King, V., & Scott, M. E. (2005). A comparison of cohabiting relationships among older and younger adul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2), 271–285.  
<https://doi.org/10.1111/j.0022-2445.2005.00115.x>
- Kline, G. H., Stanley, S. M., Markman, H. J., Olmos-Gallo, P. A., St. Peters, M., Whitton, S. W., & Prado, L. M. (2004). Timing is everything: Pre-engagement cohabitation and increased risk

- for poor marital outcom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2), 311–318. <https://doi.org/10.1037/0893-3200.18.2.311>
- Kuo, J. C. L., & Raley, R. K. (2016). Diverging patterns of union transition among cohabitators by race/ethnicity and education: Trends and marital intentions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53*(4), 921–935. <https://doi.org/10.1007/s13524-016-0483-9>
- Kuperberg, A. (2012). Reassessing differences in work and income in cohabitation and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4), 688–707. <https://doi.org/10.1111/j.1741-3737.2012.00993.x>
-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0.00328.x>
- Lichter, D., Sassler, S., & Turner, R. (2014). Cohabitation, post-conception unions, and the rise in nonmarital fertility. *Social Science Research*, *47*, 134–147. <https://doi.org/10.1016/j.ssresearch.2014.04.002>
- Manning, W. D. (2001). Childbearing in cohabiting unions: 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33*(5), 217–223. <https://doi.org/10.2307/2673785>
- Manning, W. D. (2020). Young adulthood relationships in an era of uncertainty: A case for cohabitation. *Demography*, *57*(3), 799–819. <https://doi.org/10.1007/s13524-020-00881-9>
- Manning, W. D., & Smock, P. J. (2005). Measuring and modeling cohabitation: New perspectives from qualitative dat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4), 989–1002.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5.00189.x>
- McGinnis, S. L. (2003). Cohabiting, dating, and perceived costs of marriage: A model of marriage entry. *Journal of Marriage*

- and Family*, 65(1), 105–116.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3.00105.x>
- Moustgaard, H., & Martikainen, P. (2009). Nonmarital cohabitation among older Finnish men and wome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forms of union dissolution.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64(4), 507–516.  
<https://doi.org/10.1093/geronb/gbp024>
- Musick, K. (2007). Cohabitation, nonmarital childbearing, and the marriage process. *Demographic Research*, 16, 249–286.  
<https://doi.org/10.4054/DemRes.2007.16.9>
- OECD(2016). *Family database –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 Parker, E. (2021). Gender differences in the marital plans and union transitions of first cohabitation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40(4), 673–694.  
<https://doi.org/10.1007/s11113-020-09579-7>
- Poortman, A. R., & Mills, M. (2012). Investments in marriage and cohabitation: The role of legal and interpersonal commi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2), 357–376.  
<https://doi.org/10.1111/j.1741-3737.2011.00954.x>
- Qu, L. (2003). Family trends: Expectations of marriage among cohabiting couples. *Family Matters*, 64, 36–39.  
<https://search.informit.org/doi/10.3316/ielapa.763043898932186>
- Raymo, J. M., Iwasawa, M., & Bumpass, L. (2009). Cohabitation and family formation in Japan. *Demography*, 46(4), 785–803.  
<https://doi.org/10.1353/dem.0.0075>
- Sassler, S., & Cunningham, A. (2008). How cohabitators view childbearing. *Sociological Perspectives*, 51(1), 3–28.

<https://doi.org/10.1525/sop.2008.51.1.3>

Sassler, S., & Lichter, D. T. (2020). Cohabitation and marriage: Complexity and diversity in union formation patter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1), 35–61.

<https://doi.org/10.1111/jomf.12617>

Sassler, S., & Miller, A. J. (2011). Class differences in cohabitation processes. *Family Relations*, *60*(2), 163–177.

<https://doi.org/10.1111/j.1741-3729.2010.00640.x>

Sassler, S., & Miller, A. J. (2023). Assessing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marriage thesis: Changes in the meaning of cohabitation over the relationship life cours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5*(2), 370–390. <https://doi.org/10.1111/jomf.12883>

Smock, P. J. (2000). Cohabi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 appraisal of research themes, findings, and implic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1–20. <https://doi.org/10.1146/annurev.soc.26.1.1>

Smock, P. J., & Schwartz, C. R. (2020). The demography of families: A review of patterns and 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1), 9–34. <https://doi.org/10.1111/jomf.12612>

Smock, P. J., Manning, W. D., & Porter, M. (2005). “Everything’s there except money”: How money shapes decisions to marry among cohabitat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3), 680–696.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5.00162.x>

Steele, F., Joshi, H., Kallis, C., & Goldstein, H. (2006). Changing compatibility of cohabitation and childbearing between young British women born in 1958 and 1970. *Population Studies*, *60*(2), 137–152. <https://doi.org/10.1080/00324720600598009>

Steele, F., Kallis, C., Goldstein, H., & Joshi, H.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bearing and transitions from marriage and cohabitation in Britain. *Demography*, *42*(4),

647–673. <https://doi.org/10.1353/dem.2005.0038>

Surkyn, J., & Lesthaeghe, R. (2004). Value orientations and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SDT) in Northern, Western and Southern Europe: An update. *Demographic Research*, *3*, 45–86. <https://doi.org/10.4054/DemRes.2004.S3.3>

Vespa, J. (2012). Union formation in later life: Economic determinants of cohabitation and remarriage among older adults. *Demography*, *49*(3), 1103–1125.

<https://doi.org/10.1007/s13524-012-0102-3>

Wiik, K. A., Bernhardt, E., & Noack, T. (2010). Love or money? Marriage intentions among young cohabitators in Norway and Sweden. *Acta Sociologica*, *53*(3), 269–287.

<https://doi.org/10.1177/0001699310374488>

Willoughby, B. J., Carroll, J. S., & Busby, D. M. (2012). The different effects of “living together” Determining and comparing types of cohabiting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9*(3), 397–419.

<https://doi.org/10.1177/0265407511431184>

Wright, M. R. (2020). Relationship quality among older cohabitators: A comparison to remarried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5*(8), 1808–1817.

<https://doi.org/10.1093/geronb/gbz069>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Non-marital Cohabitation and Factors Related to Marital Intentions of Cohabitators

Kim, Youj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on-marital cohabitation is an important topic that can indicate changes in the Korean family and marriage system that are becoming personalized and predict family life. This study aims to develop previous studies on non-marital cohabitation in two aspects. First, it is aimed at understanding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habitation population at the collective level. Based on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s, 「Social Statistics Survey」, 「Family Survey」, and 「Family and Fertility Surve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ize, trends, and overall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living together. Second, it aims to identify the features of

cohabitation by distinguishing the types and exploring related factors at the personal level. Based on marital intention, this study aims to classify cohabitation as a process of marriage and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The study further examines factors related to marital intention, which are divided into life development factors (age, fertility intention, duration of cohabitation), economic factors (education level,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work status), and value factors (acceptance of various lifestyles,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positive perception of the child). Additionally, the age groups are divided into youth and middle-aged (19-49 years old) and the elderly (50 years and older).

Non-marital cohabitators were defined as individuals who had a spouse but lived together without registering the marriage. Descriptive statistics and frequency analysis were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sample surveys at the national level, to understand the siz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cohabitator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factors related to the marital intentions of cohabitator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non-marital households living together in Korea was within 3%. This figure is smaller than the OECD average cohabitation rate. Despite the increasing acceptance of non-marital cohabitation, the proportion of cohabitators remains small. It is necessary to secure representative data on cohabitation by investigating cohabitation in the future census.

Second, the ratio of cohabitation as a process of marriage was higher than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In Europe, cohabitation is considered an alternative to marriage. However, in Korea, which has conservative values, cohabitation is considered a step toward

traditional marriage. Therefore, policy and institutional proposals are needed to provide support for those who cohabit and to facilitate their transition into the marriage system.

Third, it was found that the patterns of cohabitation between the young and middle-aged and the elderly were different.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young and middle-aged people considered cohabitation as a process of marriage, while elderly people viewed cohabitation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For the younger group, economic factors and fertility intention were important considerations when entering the marriage system from cohabitation. Among the elderly, significant explanatory factors for marital intention were age, duration of cohabitation, work status, acceptance of various lifestyles, and positive perception of the child. Therefore, in future policy discussions, it is suggested to approach non-marital cohabitation by considering age groups.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portion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cohabitants despite the lack of research and investigation on non-marital cohabitation. It is significant as it expands the scope of previous studies, which have mainly consisted of qualitative and review studies. Moreover, it provides important basic research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non-marital cohabitation and offers implications for social and policy discussions.

**keywords : cohabitation, cohabitor, marital intention,  
cohabitation as 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 cohabitation as  
alternative to marriag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tudent Number : 2021-27139***